



신백동 성당

설립 일. 2004. 2. 12.
주보성인. 성모성심

2024년 7월 21일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제1독서

예레 23,1-6

제2독서

에페 2,13-18

복 음

마르 6,30-34



들빛바로가기
www.wjcatholic.or.kr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시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라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영성체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 호 용 스테파노 신부 / 사직동 본당 주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 분주하다고 합니다. 눈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메시지부터 뉴스 헤드라인, 오늘의 할 일 등 수많은 것들을 확인하느라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독형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새로운 영상과 새로운 소식들을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끊임없이 전달해 주기 때문에 한시도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 목소리와 소식에 이끌려 다니는 분주한 삶, 만족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을 찾아 방황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일상 안에서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1독서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잘못된 목자를 둔 이스라엘의 말로를 이야기합니다. 목자로 표현되는 왕이 하느님과의 계약을 저버리고 불의와 불공정한 길을 걸은 결과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고향에서 쫓겨나 유배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의 목자이신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결말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목자를 두지 못했을 때 모습을 복음은 이렇게 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마르 6,34)” 목자가 없다는 것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은 물론, 불안 속에 흠여지게 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이야기 해줍니다. 또한 한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끌어줄 목자가 없으면, 서로 뜻을 달리하여 공동체는 분열되고 서로 적대시하는 모습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속에 놓인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목자의 모습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잃어버리는 양들이 없도록 목자 없이 흠여진 양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2독서의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바치시어 서로 다른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일치시켜주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분주한 삶에 지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외딴곳에서 당신과 함께 쉬기를 권고하십니다. 외딴곳은 세상의 목소리에 휩쓸려 분주히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떠나,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분을 마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서로를 시끄럽게 지적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강요하는 가운데 형제자매들과 척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을 고백하며 서로를 고요히 마주 볼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도 분열과 적대심을 조장하고, 서로를 구분 지으며, 혼란을 가중시키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외딴곳에서 나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분, 나를 위해 당신의 사랑으로 성찬을 마련해 주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만을 구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목자 아래 한 양떼(요한 10,16)’가 되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향해 기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오늘은 농민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자연의 선물을 가꾸는 농민들과,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미사 중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온갖 좋은 것을 창조하고 거룩하게 하시며 생명을 주고 강복하시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나이다.”



우리 본당을 소개합니다

행복한 신앙 공동체 신백동 성당



신백동 성당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제천시 신백동 성당은 주일미사에 참석하는 교우들이 150여 명 되는 작은 교회이다. 본당 구역은 신백동, 고명동, 흑석동, 두학동, 자작동, 강제동, 대량동 일부이고 단양군 어상천면에 어상천 공소가 있다. 본당 내 미기미 부락은 신앙의 선조들이 용기를 구우며 생활을 하였던 공소가 있었던 곳으로 옛 가마터가 남아 있으며, 자작리 마을은 순교자 하 베드로와 아들, 그리고 그의 동생이 신앙 생활을 하며 살았던 곳이다. 이분들은 후에 배론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1868년 10월 박해 때에 체포되어 충주에서 순교를 하였다 한다.

마을에 살구 꽃이 하얗게 피어 산야를 덮었다는 뜻의 신백(新白)동 성당은 남천동 성당에서 분가되었다. 1999년, 남천동 성당 주임인 김영진(바르나바) 신부는 신백동 지역에 신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자 2002년 신백동에 1,370평의 부지를 매입하였다. 그리고 본당 신자들과 합심하여 2년간의 노력 끝에 2004년 2월 12일 아름다운 새 성전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주보성인으로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성심) 마리아를 모셨다. 초대 주임인 김하수(미카엘) 신부를 시작으로 백승치(요한 세례자) 신부, 김정연(베드로) 신부, 유충희(대철베드로) 신부에 이어 현재 심한구(베드로) 신부가 본당 사목을 이끌고 있다.

신백동 성당은 현재 “행복한 우리 공동체”라는 사목 목표를 갖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례 공동체, 교우 간에 서로 환대하며 감사하는 공동체, 친교와 나눔이 펼쳐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신백동 성전을 설명하면 성모상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넓은 잔디마당과 성당 주변을 감싸고 있는 큰 나무들, 그리고 계절별로 피어나는 꽃들이 아름다운 풍광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서면 저절로 마음이 정갈해지고 따뜻해지면서 열린 마음이 되어 하느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 성전 로비 한편에 마음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작은 카페가 있는데 늘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계단을 따라 오르면 103위 성인의 환대를 받게 된다. 2층 성전 입구에 서면 자비의 예수님께서 잘 왔노라며 축복을 주신다. 성전 전실 왼쪽에 모셔진 성모성심상은 신자들의 마음을 티 없이 거룩한 당신의 마음으로 만드시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 특별히 모두 노래로 바쳐지는 주일 교중 미사는 더없이 거룩하고 아름답다.

교우들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면서 지역사회에 주님의 복음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례 공동체, 정과 사랑이 넘치는 신백동 성당은 행복한 꽃자리여라.



▲ 새단장한 어상천 공소



▲ 연주회와 함께 한 성모의 밤



▲ 신백동 성당

영성체를 하루에 몇 번 할 수 있나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는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한 사람에게 두 번까지 영성체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교회법 제917조 참조).

본당 사제, 선교 지역의 사제 등 사목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사제는 주일과 주님 성탄 대축일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을 제외하고 하루 한 번 미사를 지내듯이, 모든 신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영성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하루에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였다면 두 번까지 영성체할 수 있습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9조 참조).

미사 시작부터 온전히 참례하고 영성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태나 특별한 상황으로 늦었다더라도 성찬 전례 시작부터 참석해야 영성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 임종자,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은 미사에 참석하지 않고도 영성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종하는 이들은 비록 같은 날 영성체를 하였더라도 다시 영성체하도록 권장됩니다(교회법 제921조 2항 참조).

영성체 후 마음과 몸기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영성체한 다음 자리에 돌아와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감사 침묵 기도'를 바칩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구원의 음료를 받은 데 대하여, 침묵 안에서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이 '감사 침묵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좋습니다.

미사에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축성의 때가 가장 중요하지만, 미사 참례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자기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때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결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속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감사 침묵 기도'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회중 전체가 찬양의 특성을 지닌 찬미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미사 경본 총지침』, 88항 참조).

'감사 침묵 기도' 다음에 사제는, 개인 차원에서는 성화, 치유, 정화, 천상에 대한 그리움 등이, 공동체 차원에서는 은총, 일치, 사랑의 은혜들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속되기를 청원하며 '영성체 후 기도'를 바칩니다.

용소막 이야기 IV



정 남 진 안드레아 신부 / 용소막 본당 주임

사제관을 나와 가만히 서서 한눈에 들어오는 주변을 둘러보면, 이곳이 교우촌이었다는 사실을 더욱 직접적으로 느낀다. 눈에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성당과 사제관을 지어 그 영향력에 의존하고자 했다지만, 사실 그것은 주임 신부에게도 마찬가지다. 성당 주변에 신자들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함을 넘어 포근함을 느낀다. 성당 중 한 번만 올려도 모든 신자들이 당장이라도 달려와 성당 자리를 가득 메울 것만 같다. 용소막 본당의 초대 회장이셨던 최도철 바르나바는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며 성당 근처에 머물러 살라 명했다고 하는데, 교통수단의 발달로 거리가 무의미해진 오늘날에도 분명 ‘곁에 있음’이 주는 커다란 힘이 있다. 신앙이 모든 것이기에, 하느님이 모든 것이기에 함께 모여 살았던 많은 신자들, 하느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며 살아간 많은 조상들의 염원이 이 성당과 이 교우촌에 고스란히 남아 있음을 느낀다.

용소막 교우촌의 오래전 모습을 상상해 본다. 애초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터전에 신자들이 모여든 것이기에 신자 아닌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하던데, 한 분의 주임, 하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여 부족함이 없을 리 있겠느냐마는 그래도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그들만이 가진 고유한 분위기와 특색이 있었을 테니, ‘하느님 안에 한 가족’이었던 점이 그 대표적인 색은 아니었을까.

지금도 가정 방문을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집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친인척 관계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부님, 저기 그 집안이 저희 사돈

이잖아요. 거기 며느리가 제 딸이에요.” “신부님, 그 녀석이 제 조카예요.” “제가 이모예요.” “그 형님이 제 사촌이에요.” 이런, 가만 보니 모두 다 한 집안이였다. 오래전, 가톨릭 교우들은 교우들끼리만 혼인했다고 하더니 그게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이곳에 와 처음 목격한다. 교우촌 안에서 맺어 줄 사람이 없으면 다른 교우촌의 신자와 연을 맺어 주었기 때문에 풍수원, 곤익골, 여주 도전리에서 시집오신 분들도 계셨다. 그러니, 이곳 용소막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문율이 하나 있다. 바로 ‘뒷담화’. 잘 알지도 못하고 좀 친해졌다고 누군가에게 가서 다른 신자 욕을 했다면 큰일 난다. 그 사람이 바로 그 누군가의 삼촌이고, 사촌이고, 큰아버지일 테니까.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는데, 우리 용소막 성화의 비결이 여기에 있었던가?

이런 가족적인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는 말이 절대 낯설지 않았을 테다. 어른 신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신은 어릴 적 당신 이름을 몰랐단다. 집 안이고 밖이고 친척이고 이웃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베드로야’, ‘바오로야’, ‘마리아야’하고 세례명을 부르니, 당신 이름이 베드로고, 바오로고, 마리아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 나중에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야 담임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며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까지도 그게 자기 이름인 줄 몰라 멍하니 있었다고 하니 신앙인으로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나중에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분은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교구장 동정



7월 21일(주일) 농민 주일 미사(흥업 성당)
감사 음악회(영산 성당)
27일(토) 가톨릭 의사회 미사

축하드립니다

영명일 7월 21일(주일) 다니엘 배하정, 성호영 신부
25일(목) 야고보 김지석 주교, 권호범 신부
26일(금) 요아킴 박흥준 신부



2024 배론성지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피정 일정 안내

- 신청형 피정 - 신청형 피정은 모두 선착순입니다.
- ▶ 피정비 2박3일 : 16만원 (후원회원 8만원)
- ▶ 피정 신청 및 문의 043-651-4563

- ▶ 매일 11시 순례자 미사 (연중무휴)
- ▶ 자원봉사 후원회 모집 T.043-651-4564 M.010-7613-4564

날짜	강사	날짜	강사
8월 16일(금)~18일(주일)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 원주교구	10월 18일(금)~20일(주일)	홍성남 마태오 신부님, 서울대교구
9월 20일(금)~22일(주일)	남궁 민 루카 신부님, 원주교구	11월 15일(금)~17일(주일)	허규 베네딕토 신부님, 서울대교구

2024년 7월 25일(목)

김지석 야고보 주교님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구 알림

중·고등부 예비신학생 하계 캠프

주제 :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스바 3,14)
때 : 7월 26일(금)~28일(일), 2박 3일
곳 : 춘천교구 옥계성당
대상 : 중·고등부 예비신학생 및
사제성소에 관심있는 일반 청년
준비물 : 미사 준비, 목주, 수영복, 세면도구 등
문의 : 대학사목·성소 033-763-4220

복사학교

주제 :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
때 : 7월 30일(화)~8월 1일(목), 2박 3일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대상 : 초등학교 5학년 남·여 복사 단원,
복사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6학년(선착순 40명)
내용 : 복사교육 및 신앙교육
준비물 : 1인당 복사복 1벌(여-머리망), 세면도구 등
문의 : 대학사목·성소 033-763-4220

미사·피정·연수

농민주일 행사

때 : 7월 21일(주일) / 곳 : 흥업성당

민족화해위원회 위원모임 및 평화기원미사

때 : 7월 21일(주일) 18시30분 / 곳 : 명륜동성당
문의 : 명륜동성당 033-762-2512

사회복지 서울후원회 감사미사

때 : 7월 25일(목) 14시 / 곳 : 명동성당 소성당
문의 : 사회사목국 033-731-4557

이주민 미사 및 야유회

때 : 7월 28일(주일) 9시30분
문의 : 이주민사목 033-766-1267

파티마 세계사도직 첫 토요일 신심미사

때 : 8월 3일(토) 9시부터
곳 : 단구동성당(미사 김현수 바오로 신부)
문의 : 회장 010-4342-3535

바오로딸과 함께하는 여중·고생 피정

때 : 8월 3일(토)~4일(일) / 곳 : 여주
대상 : 여중고생(14~19세)
문의 : 김데레사 수녀 010-7251-1908

성소모임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때 : 7월 28일(주일) 14시 / 곳 : 춘천 윤교동 성당
문의 : 루카 수녀 010-9353-1773

채용·모집·기타

재속 프란치스코회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에 관심있는 신자를 위한
모집과 안내
문의 : 삼척 형제회 010-2534-7194
제천 형제회 010-5145-4671
원주 형제회 010-4948-4943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천사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1명 모집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어르신들을
돌봐주실 따뜻한 마음의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 담당자 033-747-8555~6

일본 가고시마교구 주관 성지순례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도쿄, 오사카 3박4일
문의 : 010-3645-9028

변호사 최윤환 법률사무소

최윤환(암브로시오), 신주연(글라라)
민사·형사·가사·파산 및 회생
T.033-747-8872
무실동 신법원차서 옆

명성인쇄·광고

최경택(요아킴), 이안나(안나)
칼라인쇄·책자·봉투·기념품
광고·판촉물·팜플렛·카렌다
T.033-747-0373 교구청 뒤 중앙로24

세무사 이해경 사무소

이해경(도마), 박영선(리디아)
기장대행·세금신고·이의신청
교구신자 무료 세무상담
T.033-743-0126 원주세무서 뒤

의료법인삼산의료재단삼산병원

박창기(스테파노)
병원(관절/척추, 수술/비수술)
무릎 줄기세포/인공관절, 내과
건강검진/MRI/CT/초음파)
T.033-749-9900 원주시 혁신로 5

연세치과

윤석현(요셉)
임플란트, 잇몸치료, 충치치료
예약상담 : 033-733-7505
원주원예농업 하나로마트 2층
마트주차장 무료이용

인까사·옥마루흙침대 금성침대·양성국 갤러리

송영범(이시도로), 민병욱(수산나)
T.033-747-5757
만종가구단지 내

남부·밝은안과

박찬(루카), 권혁연(프란치스코)
안종합검진, 노안, 사시 및 약시
안건조증, 눈물흘림, 눈꺼풀 처짐
T.033-766-9100
남부시장 옆·세경아파트주차

출장부페, 이동밥차, 도시락, 답례품

IN & Party (인파티)
인치열(아우구스티노), 이효진(스테파니아)
T.010-8790-1309

크리스마스 여행사 성지순례

9월10일 조지아, 아르메니아 순례 12일
9월24일 스페인 북부 순례 10일
10월13일 스페인, 포르투갈 성지순례
10월27일 이탈리아 성지순례 12일
권영욱(마티아) 010-5485-0114



농민 주일은 농민을 위한 날이자 농민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를 소비하는 도시 생활인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서른 번째 해를 앞둔 지금 그 참된 의미를 다시 생각하여 봅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회복하고, 생태적 회개의 삶을 살아가며,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제3회 순교자 성월 순례대회

2024년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 2023년에 이어, 복자 최해성 요한과 최비르지타, 김강이 시문을 기리고,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순교 성인들의 신앙과 순교 정신을 이어받고자, “제3회 순교자 성월 순례대회”를 개최하고, 행사 당일 순교자 현양 미사가 강원감영에서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제3회 순교자 성월 순례대회 (9.21(토))

□ 복자 최해성 요한이 잡혀갔던 길을 1일 순례(26Km, 서지마을~강원감영까지)

- 서지마을~옛술미공소~대안리공소~무실동성당~강원감영
- 순교자 현양 미사로 마무리(16시, 강원감영)
- ※ 출발지/종거리는 서지마을 건축 상황에 따라 변경/단축될 수 있음

□ 참여 인원 : 선착순 300명(※ 300명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출발 : 9월 21일(토) 06시 KBS 옆 골목에서 버스 출발
- 30명 이상 참여하는 본당은 별도 출발 가능
- 준비물 : 개인 도시락, 간식 및 식수(텀블러 사용), 목주, 미사 준비
※ 생수 제공하지 않음

□ 참가 신청

- 참가비 : 1만 원(농협 355-0079-4015-43 천주교원주교구유지재단)
- 본당별 취합 접수
- 9월 13일까지 F.033-765-4223, e-mail. sduljk@hanmail.net
- 문의 : 010-2775-8314

나. 순교자 현양 미사 : 9월 21일(토) 16시, 강원감영 선화당

- 최양업 신부님 시복시성을 위한 목주기도 : 9월 21일(토) 15시, 원동성당
- ※ 순례에 참여하지 못한 신자들은 목주기도 후, 강원감영 미사 참석 권장
- ※ 미사는 모든 신자 참석 가능

주최 :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원주교구 복음화사목국



제33회 옥수수잔치

일시 : 8월 22일(목) 11시~15시

장소 : 성지배론

내용 : 감사미사(교구장 주교님 주례)

점심식사(무료)

축하공연 및 이노주사 찬양단 합창

신청기간 : 7월 21일~8월 15일까지

문의 : 033-742-9113 / F. 033-731-4559

교구 사회복지회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은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옥수수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주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2024년 7월 26일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교회법과 관련되어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 한동훈(도밍고) 1998년 5월 31일
인천교구 가정동 성당에서 혼인

문의 : 원주교구 법원 033-761-3359

원주교구 성음악교육원 수강생 모집

모집인원 : 제18기 기초과정(1년) 20명
제 9기 전문과정(2년) 00명
※ 전문과정은 기초과정 수료자에 한함

모집기간 : 7월 15일(월) ~ 8월 12일(월)

강의시간 : 매학기(봄: 3~5월, 가을: 9~11월)
12주간, 주 1회(토) 6시간 수업

수강신청 : 전화 또는 문자로 신청, 접수 후 개별 안내

수강료 (계좌 : 농협 302-1195-1353-61 이규영)
1) 매학기 \400,000원
(피아노 및 오르간 수강자는 \180,000원 추가)

2) 성음악 캠프, 교재비, 자치활동비 등은 별도 계획에 의함

입학미사 : 8월 31일(토) 11:30, 교구청 경당
(신입생 OT - 10:00, 강의실)

문의 : 010-4527-5046

※ 원주교구 홈페이지 성음악교육원 공지사항 참조.

성서부 30주년 기념

“하느님 자비와 말씀의 초막제”

일시 : 9월 28일(토) 10시~16시30분(점심 제공)
15시30분(감사미사)

장소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강사 : 신우식 신부님, 이해인 수녀님

인원 : 선착순 150명 / 회비 : 3만원

계좌 : 농협 301-0325-3123-21 천주교원주교구

※ 입금 후 반드시 전화 연락바랍니다.

문의 : 복음화사목국 성서부 033-765-4226

안경매니저

오피상(방지거), 서난희(아네스)
누진 다초점·하드렌즈 전문점
T.033-742-9901 행구동 SG 마트
T.033-742-9979 무실동 부영 APT 후문

여민한의원

성태경(스테파노), 조성지(마리안나)
교통사고 / 추나요법 / 봉독약침
T.033-766-1075
봉산동 삼익아파트 맞은편 1층

정관장(홍삼) 단구점

송봉순(안젤라)
T.033-762-2305
단구동 롯데시네마 · 우리은행 옆

경성재가복지센터

남명숙(진이야가다)
어르신들 안전하게 돌봐드립니다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T.033-765-0255 · 763-0251
www.경성.kr, 관설 근린공원 인근

연세민내과 의원

염동호(가브리엘), 민미심(엘리사벳)
국가암검진지정기관(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24시간 심전도검사 면역NK세포검사
간섭유화검사(국가예방접종 위탁기관)
T.033-733-7582(중앙로86)
8시부터 검진 실시

친환경 원목가구 다심마루

최인숙(마리아)
좌탁, 서랍장, 소파, 문갑, 식탁, 침대
황토석온열침대 온열소파
T.033-761-4994
관설KT정문 맞은편

착한시공하우징

백정현(임마누엘)
김진숙(클라우디아)
신축 / 각종 리모델링
전기조명 / 생활소품 일체
T.010-7384-0010 카드결제 가능



밝음신협

故지학순주교님 도움으로 시작됨
예탁금, 적금대출상담, 카드단말기공제
(보험)은누리상품권
본점 : 033-745-4571 단관 : 764-4575
무실 : 033-748-6900 혁신 : 735-4575